

##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 연구\*

- 남녀 간 문학적 소통의 방식을 중심으로

윤혜지\*\*

### 목 차

1. 서론
2.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 형성 배경
3.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 속 소통의 방식
4.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 창작 특징
5. 결론

### 국문초록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작품은 중국 고대 남녀교류사의 중요한 기초자료들로, 본문에서는 남녀작가의 唱和詩詞작품이 형성된 배경, 唱和詩詞작품에 드러난 남녀작가의 문학적 소통의 방식, 그리고 창작상의 특징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중국 고대 시문학의 求愛詩, 聯句詩 창작의 전통과 사대부 계급의 남녀관계에 존재했던 수용과 존중의 문화는 중국문학사에 많은 男女唱和詩詞작품을 남기게 하였다. 이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소통의 방식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대의 감정을 최대한 긍정하고 모두 받아들이는 수용형 소통, 상대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내적 불안을 드러내는 비난형 소통, 개인적 감정을 초월하는 사회형 소통, 마지막으로 상황 변화에 융통성 있고 개방적인 일치형 소통이 그것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남녀작가의 사적 감정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며, 남녀작가가 작품을 주고받게 되는 경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639)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강사

위와 애정고사가 담겨 있어 복합 예술적 특징도 보인다.

**키워드:** 중국고전문학, 남녀문학교류, 부부작가, 창하시(唱和詩), 창화사(唱和詞)

## 1. 서론

문학은 독자적으로 형성되거나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문학 주체 상호 간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 중국 고대 여성문학의 형성도 당시 우위에 있었던 남성 보편문화와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전통적 문학양식인 시가문학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중국문학에서 ‘唱和’와 ‘酬唱’의 전통은 이르게는 『詩經·鄭風·蕢兮』에서 시작되며,<sup>1)</sup> 蘇統의 『文選』에서도 贈答詩를 시의 분류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그 역사적 연원이 깊다. 실제로 중국 고전문학작품 안에는 남녀 간에 주고받은 唱和詩詞작품이 다량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남녀작가의 唱和詩詞작품이 형성된 배경과 唱和詩詞작품에 드러난 남녀작가의 문학적 소통의 양상, 그리고 창작상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검토해보려 한다.

중국 고대 남녀작가가 주고받은 唱和詩詞작품에는 중국의 유명 문인들과 그들의 아내 혹은 연인들 간 사적인 교류를 담고 있는 寄內類의 詩詞작품에서부터 그동안 중국문학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문인들의 寄外類의 詩詞작품들, 그리고 남녀작가가 서로 주고받은 共吟類의 詩詞작품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sup>2)</sup> 또한 소설과 희곡 등 다른 장르의 문학작품 속에서 거듭 활용되었던 남녀 간의 愛情故事도 풍부하게 담겨 있다. 본문에서는 우선 부부

1) 『詩經·鄭風·蕢兮』: “蕢兮蕢兮, 風其吹女. 叔兮伯兮, 倡予和女.” 여기서 말한 ‘和’를 孔穎達은 ‘和聲’ 즉 ‘화답하다’는 뜻으로 보았다. (先發聲者爲唱, 後應聲者爲和.)

2) 內라 하면 일반적으로 아내를 가리키고 外라 하면 일반적으로 남편을 가리킨다. 하지만 본 논문의 작가 중에는 결혼에 이르지 못한 남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남성이 여성에게 지어 준 부류를 寄內類라고 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지어 준 부류를 寄外類라고 한다.

와 연인관계에서 시대별로 대표성을 지니는 남녀작가의 작품 일부를 다루어 보려 한다.

국내의 연구 동향은 크게 문학교류연구, 남녀작가연구, 시사작품연구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문학교류연구는 남성문인 간의 문학교류나 군신 간의 문학교류, 한·중문인 간의 문학교류가 주를 이루었으며, 남성문인과 기녀 간의 문학교류와 부부사이의 애정시사교류에 대해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다. 다음으로 남녀작가연구에 있어서 謝惠連과 劉令嫻, 秦嘉와 徐淑, 楊慎과 黃娥, 范允臨과 徐媛 등의 부부작가나 沈佺과 張玉娘, 趙孟頫과 管道昇 등 애정고사를 남긴 작가들이 주로 연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사작품연구에 있어서 국내외에 많은 연구저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남녀 간 주고받은 시사작품을 추려냈을 때 비교적 다량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鄭光儀의 『中國歷代才女詩歌鑒賞』과 周殿富의 『女彊』과 같은 시가문학전집과 여성문학관련 저서였다.

종합해보면 대다수의 연구가 시사작품을 다루면서 唱和詩詞를 언급하는 경우였고, ‘唱和’나 ‘酬唱’을 주제로 남녀작가의 시사작품 교류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내 연구성과로는 애정 주제나 부부의 관계성을 다룬 단편 논문 3편이 있다.<sup>3)</sup>

## 2.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 형성 배경

### 1) 중국 고대 求愛詩, 聯句詩 창작의 전통

唱和詩詞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집체적 창작활동으로 원시 노동요에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sup>4)</sup> 공자가 일찍이 이야기한 여럿

3) 김의정, 「范允臨 『翰墨館集』 수록 시를 통해 본 명대 문인사회 속 ‘夫婦有別’과 소통을 향한 열망」, 『중국어문학지』(44), 2014년 9월, 류창교, 「漢代の 부부 문인 秦嘉와 徐淑의 사랑과 교양」, 『중국학보』(75), 2016년 2월, 김의정, 「明末清初 여성시와 夫婦의 모습」, 『중국어문학논집』(97), 2016년 4월.

이 모이게 하고(可以群), 원망할 수 있게 하는(可以怨) 시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문학적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시적 효용론으로 중국 고대사회에서는 군신 간·문인 간 교류에 詩詞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그 결과 唱和의 詩歌작품이 東晉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여,<sup>5)</sup> 唐宋시기에는 절정에 달한다. 唱和詩는 크게 唱詩와 和詩로 나눌 수 있는데, 和詩는 唱詩 작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목표로 한다. 처음에는 의례적 장소에서 지어진 應酬詩가 점차 문인들의 사적영역으로 옮겨와 사회적 교류 중 지어졌고, 이어 남녀관계에서도 감정적 소통을 목적으로 唱和詩가 창작된다.

최초의 男女唱和詩詞로 추정할 수 있는 작품은 『詩經·鄭風·羶兮』로 여성이 남성에게 求愛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작품에는 求愛와 離別의 唱和詩詞작품이 특히 많은데 형식이나 정서 표현 등에서 이 작품은 후대 男女唱和詩詞작품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 聯句詩<sup>6)</sup>형태의 男女唱和詩詞작품으로 가장 이른 것은 西晉시기 賈充(217-282)과 그의 아내 李婉이 한 구절씩 연이어 쓴 「與妻李夫人聯句詩」 3수를 들 수 있는데 부부가 백년해로하길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與妻李夫人聯句詩」三首 賈充·李婉

其一

室中是阿誰?

내실에 누가 있는가?

- 4) 『淮南子·道應』: “오늘날 무릇 큰 나무를 진 자는 앞에서 말하는 부르는 대로 뒤에서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노래이다.(今夫舉大木者, 前呼邪許, 後亦應之, 此重勸力之歌也.)”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후로 호응하는 이러한 노동의 구호는 唱和詩詞의 원시 형태라 할 수 있다. 鞏本棟, 『唱和詩詞研究』, 北京: 中華書局, 2013年, pp.5-6.
- 5) 宴會나 餞別 혹은 문인집단의 교류에서 시가창작은 중요한 교류행위 중 하나였다. 建安시기 曹丕를 중심으로 한 문인집단, 西晉의 賈謐을 중심으로 한 二十四友, 石崇을 중심으로 30여명의 문인이 모인 金谷詩會, 東晉의 王羲之의 주도로 會稽 蘭亭에 모여 시를 지었던 蘭亭雅會 등에서 문인들끼리 서로 시를 지어 증답하였다. 姜必任, 「중국 초기 唱和詩 연구-東晉에서 梁代를 중심으로」, 『중어중문학』(39) 2006년, p.293.
- 6) 聯句詩는 唱和詩詞와 같은 기원을 가지고 唱和詩詞의 한 부분이다. 鞏本棟, 「關與唱和詩詞研究的幾個問題」, 『江海學刊』, 2006年 3月, p.162.

嘆息聲正悲.(賈)      탄식의 소리 슬프네.  
 嘆息亦何為?      탄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但恐大義虧.(李)      단지 큰 뜻 일그러질까 두려워서네.

其二  
 大義同膠漆,      큰 뜻은 아교와 옷 같고,  
 匪石心不移.(賈)      바위 같은 마음은 변치 않네.  
 人誰不慮終,      인생사 누가 끝을 염려하지 않겠는가?  
 日月有合離.(李)      해와 달도 만나고 헤어짐이 있는데.

其三  
 我心子所達,      내 마음 그대에게 닿아  
 子心我所知.(賈)      그대 마음 내 마음 같아라.  
 若能不食言,      만약 그대 말 지킨다면  
 與君同所宜.(李)      그대와 함께 살리라.

이외에도 부부관계에서 지어진 男女唱和詩詞작품으로 가장 이른 것은 前漢 시기 司馬相如와 卓文君의 「鳳求凰」·「白頭吟」·「怨郎詩」등의 작품이 있는데 남녀 사이의 구애와 원망의 정서를 담고 있다.<sup>7)</sup> 求愛詩와 聯句詩의 창작 전통에서 발전해 前漢代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男女唱和詩詞작품은 唐·宋·元代에도 꾸준히 이어져 여성의 글쓰기가 활발해지는 明末·清初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 2) 남녀 간 지적대화를 통한 수용과 존중의 사대부 문화

모든 인간은 타인과 소통을 통해 수용되고 존중받기를 원한다. 중국 고대 남녀작가가 唱和詩詞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중국 고대사회에도 남녀가 서로 대화하는 지적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시험에 떨어지거나 하던 일이

7) 이외에 晉代 蘇惠의 「璇璣圖詩」, 楊荅華가 蘭僧度에게 보낸 贈詩, 南朝시기 宋나라 鮑令暉가 남편에게 보낸 贈答詩 三首와 陳나라 沈后의 「答後主詩」, 陳小女の 「寄夫詩」, 梁나라 劉氏(王淑英의 아내)의 「贈夫詩」, 齊나라 謝氏의 「贈王肅」 등의 唱和詩가 있다.

잘되지 않을 때 아내는 詩詞를 지어 남편을 위로했고, 멀리 관직에 나아가 아내와 헤어져야 했을 때 남편은 아내와의 이별의 슬픔을 詩詞로 공감할 줄 알았다. 비단 정서적 수용과 존중뿐 아니라 문학과 서예, 그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격려하는 등 지적 대화를 이어갔던 사례는 중국 고대사회에 매우 많다. 예를 들면 송대 李清照는 남편 趙明誠의 『金石錄』 後序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데, 부부 사이에 지적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매번 식사가 끝나면 歸來堂에 앉아 차를 끓이곤 쌓아놓은 책과 역사서들을 가리키면서, 남편과 어떤 사건이 어떤 책 몇 권 몇 쪽 몇째 줄에 있는지를 말하며, 맞고 틀림으로 승패를 가려 누가 차를 먼저 마실지 정하곤 하였다. … 이 때문에 비록 근심과 곤궁함에 처해도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다. (每飯罷坐歸來堂, 烹茶指堆積書史, 言某事在某書某卷第幾葉第幾行, 以中否角勝負, 為飲茶先後. … 故雖處憂患困窮, 而志不屈.)<sup>8)</sup>

이외에 원대 趙孟頫와 管道昇 부부는 서예와 그림을 놓고 자주 토론했으며, 청대 奕繪와 顧太清 부부도 경치 좋은 곳을 유람하고 그 素懷를 담은 시사작품을 唱和하였다. 이러한 남녀관계의 바탕에는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소통과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 즉 이들 사이에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대를 인정하는 소통의 장이 있었고, 서로 바라보고 공감하며 정감을 나누는 문학적 교류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소소한 주제가 깊이 있는 담화로 이어지는 대화의 확장이 있었다.

### 3) 봉건사회 혼인과 일부다처제 문화

『詩經·齊風』에는 “장가를 들 때는 어찌하는가? 반드시 부모에게 여쭙어야지.(取妻如之何? 必告父母.)”라는 구절이 있다. 중국 고대 봉건사회에서 혼인은 집안의 일이었으며 남녀가 상대를 결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남녀는 詩詞

8)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北京: 臺灣商務印書館, 1994年, p.164.

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은근히 전달하였고 그렇게 唱和詩詞는 남녀의 뜻을 전달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매개로 사용되었다. 司馬相如是 「鳳求凰」 한수로 卓文君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원대 鄭禧와 吳氏는 시사를 통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 봉건사회는 남존여비의 문화에서 전국시대 이후부터는 일부다처제가 보편화되어 있었다.<sup>9)</sup> 남성은 아내뿐 아니라 수많은 첩을 거느릴 수 있었고<sup>10)</sup> 이것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의 총애를 갈망하게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일부다처제 문화 안에서 총애를 잃을까 남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하는 여성작가들의 唱和詩詞작품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東晉시기 王獻之의 애첩 桃葉은 「答王團扇歌」第一首에서 ‘당신을 위해 더위 물리쳤으니 기억하며 잊지 마세요.(與郎却暄暑, 相憶莫相忘.)’라고 당부하고, 隋代의 侯夫人은 「自感」第一首에서 ‘정원에는 황상의 행차 끊어져 방초만 무성한데... 황상의 은혜는 어디에 많으신가?(庭絕玉輦迹, 芳草漸成窠...君恩何處多.)’라고 토로한다. 후궁이 되어 煬帝의 총애를 얻지 못한 후부인은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외에도 明末·清初의 기녀 柳如是(1618-1664)는 陳子龍이 본처에 의해 헤어짐을 강요받고 있을 때 진자룡과 白龍潭으로 여행을 가 「游龍潭精舍登樓作, 時大風和韻」라는 시를 지으며 ‘어지러운 수심을 하늘가에 내던져 보지만 쉬이 봄 쭉 되는 내 사랑 가련하다.(歷亂愁思天外去, 可憐容易等春蓬.)’고 말한다.

### 3.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 속 소통의 방식

남녀 간의 감정을 문학으로 수용하는 것은 남녀작가가 현실 삶의 시공간적 확대를 통해 상호 공감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긍정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다. 男女唱和詩詞는 남녀 간의 문학적 교류를 통해 상호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을

9) 상계서, p.36.

10) 동한 말기 정치가 仲長統(180-220)은 “公侯之宮, 美女數百; 卿士之家侍妾數十.”이라고 말했는데, 축첩문화가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계서, p.60.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국문학에서 가장 소통 지향적인 문학 장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을 통해 남녀작가는 말로는 전할 수 없었던 것들을 표현하고, 또 이 작품들의 행간에서 상대의 의중을 읽었다.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 속 소통의 방식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대의 감정을 최대한 긍정하고 모두 받아들이는 수용형 소통, 상대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내적 불안을 드러내는 비난형 소통, 개인적 감정을 초월하는 사회형 소통, 마지막으로 상황 변화에 융통성 있고 개방적인 일치형 소통이 그것이다.<sup>11)</sup>

#### 1) 상대의 감정을 긍정하고 모두 받아들이는 수용적 소통

우선 상대방의 감정에 최대한 맞추며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를 존중하는 소통의 방식이 보이는데, 宋代 張玉娘(1250-1276)과 그녀의 정혼자 沈佺(1250-1271)이 주고받은 詩詞를 예로 들 수 있다.

「山之高」張玉娘『唐宋才女逸史』

山之高, 月出小,	산은 높고, 달은 작은데.
月之小, 何皎皎.	작은 달이 어찌나 휘영청 밝은지
我有所思在遠道,	나는 멀리 있는 그대를 생각하네.
一日不見兮, 我心悄悄.	하루도 님을 보지 못하니 이내 마음엔 걱정 근심뿐
采苦采苦, 於山之南,	쓰디쓴 풀을 캐고 또 캔다네. 남쪽 산에서
忡忡憂心, 其何似堪.	근심 가득한 마음을, 어찌 견딜 수 있을까?
汝心金石堅,	그대의 마음은 금속처럼 견고하고
我操冰雪潔.	내 마음도 빙설과 같이 순결하다네.
擬結百歲盟,	우리 백 세까지 살자 맹세했건만
忽成一朝別.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별하였네.
朝雲暮雨心來去,	아침 구름, 저녁 비, 모두 근심이라,
千里相思共明月.	천 리 떨어져 그리워하며 그저 밝은 달만 함께하네.

11) 버지니아 사티어(Virginia Satir, 1916-1988)의 의사소통이론을 참고하였다.



「沈佺寄張玉娘詩」 沈佺 『唐宋才女逸史』  
 隔水度仙妃, 강물 너머로 선녀 같은 그대가 건너오는데  
 清絕雪爭飛. 다투어 날렸던 눈발도 깨끗이 그쳤네.  
 嬌花羞素質, 아리따운 꽃과 같이 흰 피부에 수줍은 모습  
 秋月見寒輝. 가을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는 그대 보이네.  
 高情春不染, 깊은 애정은 해가 가도 여전히 변함없고  
 心鏡塵難依. 깨끗한 마음에는 티끌 또한 앉지 못하네.  
 何當飲雲液, 언제야 술 한 잔 마시며  
 共跨雙鸞歸. 함께 난새 한 쌍 타고 돌아갈 수 있을까?

장옥랑과 심전은 浙江省 松陽출신으로 같은 마을에서 같은 해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다. 15세에 두 사람은 정혼하였는데, 나중에 심전의 집안이 기울면서 장옥랑의 부모는 혼약을 파기하고자 하였다. 장옥랑이 강하게 반대하자 심전에게 과거급제 후 돌아오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하였고 이 일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 항주에 과거를 보러 간 심전은 급제 후 크게 이름을 떨쳤으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병을 얻어 죽고 만다. 위의 화답시는 죽기전에 심전이 마지막으로 답한 작품이다.

작품을 살펴보면 먼저 장옥랑은 「山之高」시에서 서로의 마음 변하지 말고 오래도록 해로하자 맹세했는데, 결국 이별하여 천 리 떨어진 곳에서 달만 함께 바라본다고 원망의 마음을 드러낸다. 심전은 「沈佺寄張玉娘詩」에서 옥랑의 마음을 달래며 깊은 정은 봄이 와도 바뀌지 않으며, 마음은 너무 깨끗하여 티끌조차 앉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역시 함께 만날 그날을 고대한다고 옥랑을 위로한다. 이 시를 지어 보낼 때 심전은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심전은 “함께 난새 타고 돌아갈 것(共跨雙鸞歸)” 즉 다음 생을 기약한다고 말한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전의 위의 화답시에서 남녀작가의 수용형 소통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외에 청대 顧太清(1799-1876)과 奕繪(1799-1838)는 200수가 넘는 시사

작품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주로 경치 좋은 곳을 함께 유람하고 唱和한 작품이거나 그림이나 주제를 정해 이에 대해 상호 唱和한 작품들이다.<sup>12)</sup> 이 작품들은 주로 자연 경물에 대한 작가의 행복한 감정을 읊고 있는데, 唱詞의 시적 분위기에 최대한 호응해 비슷한 감정으로 和詞를 창작하였다.

「鷓鴣天·上巳同夫子遊丰台」顧太清『顧太清與奕繪詩詞合集』

南郭同游上巳天，小橋流水碧灣環。海棠婀娜低紅袖，楊柳輕盈盪綠煙。  
花艷艷，柳翩翩，斷魂花柳又春殘，夕陽影裡雙飛蝶，相逐東風下菜田。

남쪽 성곽으로 함께 구경 갔다 날이 저물었는데, 작은 다리 아래 푸른 물이 돌아흐르네. 고운海棠화 아래 붉은 소매, 버들은 푸른 안개 가운데 가벼이 흔들린다.

꽃은 어여쁘고 버들은 한들한들, 가슴을 아리는 꽃과 버들 또 봄이 사라지네. 석양 그림자 속의 한 쌍의 나비 동풍 아래 채소밭에서 서로를 쫓네.

이 작품에서 고태청은 자연 경물 묘사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자연 경물 속 나비 한 쌍처럼 현재 자신이 행복하며, 앞으로도 남편과의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였다.

「探春慢·上巳同太清丰台看花」奕繪『顧太清與奕繪詩詞合集』

澹日籠花，微陰釀雨，勝它清朗天氣。一帶春郊，三官梵宇，試訪海棠開未。重九題詩處，又滿院、嬌紅放蕊。永和天寶風流，蘭亭曲水佳麗。最羨右軍高躅，正誓墓歸來，絲竹中歲。柳下停車，花間並馬，一日遊須紀，野老殷勤甚，具雞黍、相留牽轡。茅舍疏籬，此中大有真意。

맑은 햇살 초롱꽃, 옅은 어둠이 비를 빚어 맑은 하늘을 이기네. 일대의 봄나들이, 삼관의 절에海棠화가 피었는지 가볼까? 중양절 시를 짓는 이곳엔 또 정원과 흥교에 꽃봉오리가 가득하네. 영화에서 천보까지의 풍류, 난정을 굽이 흐르는 물 아름답다.

우군의 고상한 품격 흠모하여 무덤 앞에 맹세하고 돌아오는데 가는 대 나무가 벌써 중년이 되었네. 버들 아래 수레 세우고 꽃 사이에 말을 나란

12) 顧太清과 奕繪가 남긴 唱和詩詞작품은 상당한 분량으로, 그 자체로 새로운 연구논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남녀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한 수씩만 인용하였다.

히 하니, 하루의 여정 써야하리. 시골 늙은이 다정함이 깊어. 닭 잡고 기장밥 준비하여 서로 남으라 말고삐 당기네. 띠로 이은 짐, 성긴 울타리, 그 가운데 큰 뜻이 있지.

혁희는 고태청의 행복한 감정의 고백을 받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말한다. 작가는 아내와 나란히 꽃구경 나서 소박한 음식에 봄 풍경을 즐기니, 작고 누추한 집이라도 어찌 행복이 없을까? 라며 깊은 행복감을 드러낸다. 부부가 서로의 시상에 맞춰 교차로 창작하는 이러한 창화시사작품은 자신의 내적 감정의 표현보다 함께 유람하며 남녀가 교류하는 상호 소통 자체에 의미를 둔다. 마지막으로 唐代 長安의 기녀 柳氏와 韓翃의 증답시도 수용형 소통의 모습을 보이는데, 한평은 유씨에게 아래의 「章臺柳」시를 보내 유씨의 마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지를 살핀다.

「章臺柳」韓翃 『全唐詩』卷890  
 章臺柳, 章臺柳. 장대의 버드나무, 장대의 버드나무  
 往日依依今在否. 지난날 하늘거림 지금도 여전히 있는가?  
 縱使長條似舊垂, 실령 긴 가지 것처럼 늘어져 있더라도.  
 也應攀折他人手. 또 응당 다른 이의 손에 꺾였겠지?

작가는 버드나무에 기녀 유씨를 비유하여 비록 나이는 들었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유씨가 다른 이에게 마음을 줬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씨의 마음이 어떨는지 묻는다. 이에 유씨는 아래와 같이 답한다.

「答韓翃」柳氏 『柳氏傳』  
 楊柳枝, 芳菲節. 버드나무 가지, 무성한 계절에도  
 可恨年年贈離別. 한스런 마음으로 해마다 이별가지 보냈네.  
 一葉隨風忽報秋, 버들잎 하나 바람 따라 홀연히 가을을 알리는데,  
 縱使君來豈堪折. 실령 그대 온다 한들 어찌 꺾으려 하시겠는가?

사실 유씨는 한평이 버드나무 무성한 계절에 이별의 한으로 가을을 맞게

하시더니, 어찌 다른 이에게 꺾였을 것이라고 말하는지 묻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창 때 그대를 기다리다 가을을 맞았으니 누가 자신을 꺾으려 하겠냐고 그대 한평이 다시 오셔도 나를 꺾으려 할지 모르겠다고 애들러 말한다. 이렇게 작가는 자신의 내적 감정은 숨기고, 한평을 향한 무조건적 수용의 의지를 드러낸다.

## 2) 내적 불안을 드러내는 비난적 소통

소통은 상대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내적 불안을 밖으로 드러내어 상호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도 시작된다. 중국 고대 唱和詩詞에서 남녀작가는 상대의 문제행동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위장하는데, 이는 소통을 원하는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詩詞작품 안에 담기는 상대에 대한 비난은 사실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도움을 구하는 소통의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卓文君(B.C. 175-B.C.121)의 「白頭吟」이 있다. 탁문군은 한나라 臨邛의 부호인 卓王孫의 딸로,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친정에 와 있던 중 司馬相如와 야반도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힘들게 꾸린 가정이었으나 사마상여는 곧 변심을 하고 武陵의 여인을 첩으로 맞겠다고 한다. 탁문군은 시를 지어 남편을 향한 원망과 결별의 의중을 드러낸다. 그녀는 ‘듣기로 그대에게 두 마음이 있다고 하니 이로써 옛정을 끊으려 합니다. 오늘 함께 술자리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개울가에 있겠습니다.(聞君有兩意, 故來相決絕. 今日斗酒會, 明日溝水頭.)’라고 말한다. 또 ‘대나무 낚싯대는 어찌 이리 하늘거리고, 물고기 꼬리는 어찌 이리 간들거릅니까? 남자는 의기를 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어찌 재물만 위하십니까?(竹竿何嫋嫋, 魚尾何簞簞. 男兒重意氣, 何用錢刀爲.)’라며 남편의 행동을 비난하는데, 굳고 단단하여 대나무 같던 남편의 인격과 부드럽고 귀여워 물고기 꼬리 같던 남편의 심성이 다시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내가 의기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돈이나 벌여 호강하며 되는대로 살아가려 한다고 거세게

비난한다. 그러나 ‘처량하고 또 처량하다.(淒淒復淒淒)’ 라고 말하는 작품의 행간에서는 홀로 남겨진 자신에 대한 연민을 지닌 작가의 속마음도 드러난다. 작가는 사실 남편과의 결별이 아니라 백발이 되도록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춘추시대 秦의 재상으로 알려진 百里奚의 아내 杜氏는 「廢廖歌」라는 작품에서 출세하여 처자식을 잊은 백리해를 다음과 같이 나무란다. ‘백리해 당신은 다섯 마리 양가죽으로 풀려나셨다지요. 이별할 때 기억나시나요? 암탉을 잡았지요. 조를 절구에 빻고 문빚장을 뜯어 불을 땀었지요. 오늘 부귀해지시니 내가 한 것을 다 잊으셨네요.(百里奚, 五羊皮. 憶別時, 烹伏雌. 舂黃臠, 炊廢廖. 今日富貴忘我爲.)’ 백리해는 원래 虞출신으로 우리나라가 췌에 멸망하자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려 간다. 그가 떠날 때 아내 두씨는 가난한 형편에도 문빚장을 뜯어 불을 지피고 암탉을 삶아 떠나는 남편을 대접한다. 백리해는 팔려 가는 중에 초나라 宛지방에서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말을 들은 秦나라 武公에 의해 몸값을 배상받고, 진나라에서 관리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재상으로 출세한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 두씨는 빨래하는 아낙으로 백리해를 찾아가게 되고 그의 앞에서 이 시를 노래한다. 그녀는 시에서 ‘부귀해지니 자신이 해줬던 것을 다 잊었네.(今日富貴忘我爲.)’라고 말하는데 분명 남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원망이다. 두씨는 다른 시에서도 ‘아비는 진수성찬 먹는데 자식은 배를 굶고, 지아버는 비단옷 입는데 아내는 옷을 빼네.(夫梁肉, 子啼飢. 夫文綉, 妻浣衣.)’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인다. 그녀의 이러한 비난에는 가족들을 챙겨주길 바라는 소통의 의지가 담겨 있다. 다행히 백리해는 아내의 뜻을 간파한다. 그리하여 그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친다.

이외에 비교적 완곡하게 자신의 원망의 마음을 표현하여 소통의 의지를 드러낸 작품도 있는데 바로 班婕妤의 「怨歌行」이다. 반첩여는 한나라 때 궁녀로 뽑혀 成帝의 총애를 받아 첩여로 임명되나 趙飛燕의 등장으로 長信宮으로 쫓겨나 태후를 모시고 살다 생을 마감한다. 이 작품은 사랑받으며 애용되다가 가을이 오면 상자에 버려지고 마는 가을 부채에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것이다. ‘두려운 것은 가을이 와서 서늘한 바람이 더위를 빼앗는 것, 상자 속에 버려져 은정이 중도에 끊기는 것(常恐秋節至, 涼風奪炎熱. 棄捐篋笥中, 恩情中道絕.)’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근심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가을 부채를 버려두는 성제에 대한 완곡한 비난이고 이러한 비난의 이면에는 자신을 다시 봐주길 바라는 반첩여의 소통의 제스처가 담겨 있다.

기녀들도 이와 같은 비난형 소통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中唐시기 太原의 관기 李倩은 歐陽詹(755-800)을 만나 한동안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나 구양침이 國子助教가 되어 長安으로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이천은 아래와 같은 시를 보낸다.

「寄歐陽詹」太原妓 『全唐詩』卷802  
 自從別後減容光, 이별 후 얼굴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  
 半是思郎半恨郎. 절반은 그대 그리워서이고, 절반은 그대 원망스러워서네.  
 欲識舊來雲髻樣, 예전의 제 머리모양 알고 싶으시면,  
 爲奴開取纓金箱. 저를 위해 이 자개함 열어 보세요.

일찍이 구양침은 이천에게 폭 빠져 태원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장래를 약속하는 시<sup>13)</sup>를 남긴다. 그러나 장안으로 간 후 그는 ‘홀로 떠나는 이 마음 쓰다 한들, 홀로 남은 당신 마음보다 괴롭겠소?(去意自未甘, 居情諒猶辛.)’라던 시 속 말들이 무색하게 그녀를 잊고 장안의 관직 생활을 이어간다. 이천은 그를 기다리다 병이 들고 병세는 점점 나빠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천은 죽음을 앞두고 시 속 말 그대로 그리움 반, 원망 반의 마음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시와 함께 그에게 보낸다. 시 속의 원망의 말들은 사실은 구양침을 향한 그리움의 표현이었으며, 자개함 속의 머리카락은 구양침을 향한 비난이나 저주가 아니라 이천의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다.

이외에 당대 杜羔의 아내 趙氏는 좀 더 노골적으로 남편을 비난하는데,

13) 歐陽詹, 「初發太原, 途中寄太原所思」: 驅馬覺漸遠, 回頭長路塵. 高城已不見, 況復城中人. 去意自未甘, 居情諒猶辛. 五原東北晉, 千里西南秦. 一履不出門, 一車無停輪. 流萍與系匏, 早晚期相親. 『全唐詩』卷349

「夫下第」라는 시를 보내 과거급제가 늦어지는 남편을 ‘이제는 얼굴 마주하기 부끄러우니 집에 오실 때 밤에 오세요.(如今妾面羞君面, 君若來時近夜來.)’라고 비난한다. 남편의 과거급제에 사회적 성공이라는 자신의 욕망을 이입한 조씨의 마음에는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가족의 삶도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다. 그래서 이듬해 이 시에 자극받은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자 다시 「聞夫杜羔登第」 시를 보내 ‘뜻을 이룬 그대 한창 때일 것이니, 오늘밤 어느 누각에서 취하셨나요?(良人得意正年少, 今夜醉眠何處樓.)’라며 남편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렇게 조씨의 시 저변에는 내적 불안이 잠재해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과 이를 이루어줄 남편과의 소통의 제스처가 담겨 있다.

### 3) 개인적 감정을 초월하는 사회적 소통

이 부류의 작품에서는 남녀작가의 개인적 감정보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또는 올바른 남성 혹은 올바른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상호 공감이 표출되며, 개인적 감정표현은 최대한 절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명대 黃峨(1498-1669)가 남편 楊慎(1488-1559)에게 보낸 아래의 시가 그러한데 황아는 남편이 雲南으로 폄적된 후 30여 년을 떨어져 지내며 남편이 그곳에서 새로 첩을 들이고 자식들을 낳을 때까지 시댁 식구들을 돌보며 고작 5번 남편을 만난다.

「寄升庵」其二 黃峨 『黃峨詩詞曲賞析』

聞道滇南花草鮮, 듣자니 운남에는 꽃과 풀이 곱아서

輸君日日醉花前. 날마다 꽃 앞에서 당신 취한다고 하는데.

銀河若得鵝毛渡, 저 은하수를 만약 산 까치 날개 얻어 건넌다면

並駕仙舟聽採蓮. 신선의 배 함께 타고 채련가를 들을 텐데.

남편에게 보내는 위의 시에서 황아는 남편이 운남에서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낸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은하수를 건너 만나고 싶다고 그 심정을 표현한다. 결혼 후 이별하여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도 운남에서 두 명의 첩을 얻고 잘 지내는 남편에 대해 작가는 원망의 마음이 있다. 하지만 아내로서 그런 남편이라도 믿고 따르며 마음을 나누려 애쓴다. 그래서 남편을 비난하기보다는 산까지 날개를 얻어 자신이 남편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한다. 황아로서는 양신의 아내라는 사회적 위치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 있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보내는 위의 시에서도 가정을 함께 꾸러가는 동력자로서의 소통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清代 馮嫻(1655전-1695후)이 남편에게 답한 「和夫子述懷」를 살펴보자.

「和夫子述懷」馮嫻 『歷代女性詩詞鑑賞辭典』

李廣當年亦未侯, 이광 장군도 제후에 봉해지지 못했으니  
 書生何必苦悲秋. 서생이 가을을 슬퍼하며 괴로울 필요가 있으랴?  
 舌存待執咸陽柄, 혀만 있으며 함양을 얻을 수 있고  
 志遠曾歸石室囚. 뜻을 멀리 두면 갇힌 석실에서 돌아갈 수 있으리.  
 滿目雲霞俱是幻, 눈앞에 가득한 구름 노을은 허상이고,  
 半庭松竹盡堪收. 정원 가득 송죽은 가질 만하네.  
 同君翰墨閒消遣, 그대와 함께 글 쓰며 한가히 시간을 보내면  
 已覺身居百尺樓. 이미 백척루에 있는 것과 같네.

이 작품은 남편이 懷才不遇의 심경을 읊은 작품에 작가가 화답한 것이다. 우선 첫 구절에서 작가는 飛將軍 李廣의 고사를 들어 남편을 위로하는데,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광장군도 결국 요직에 앉지 못했는데, 당신께서 그리 상심할 이유가 무엇이나고 말한다. 또 전국시대 중형가 張儀의 전고를 들어 장의는 초나라에서 璧玉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 곤장 몇백 대를 호되게 맞고도 자신의 혀만 있으면 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의 혀가 그리 무사하니 언젠가는 함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또 范蠡와 勾踐이 석실에 갇혀 훗날을 도모한 전고를 들어 지금의 좌절을 반드시 이겨내고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고 격려한다. 이렇게 남편을 위로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명리와



권력은 모두 허상이라며 정원 가득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높은 절개가 있다면 명리와 부귀는 무엇에 필요합니까? 라며 남편을 설득한다. 마지막 구절에 사용된 百尺樓는 삼국시대 劉備와 陳登의 고사<sup>14)</sup>를 사용한 것으로, 함께 글 쓰며 한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높은 지위를 얻은 것과 다름없다고 아내로서 남편의 심정을 살피는 등의 사회적 역할을 다한다. 즉, 개인적인 심사의 표현이 아니라 실의에 빠진 남편을 위로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지 않는 현부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그래서 沈善寶도 『名媛詩話』에서 이 작품을 두고 “가슴이 물욕 없이 고요하니 은거의 즐거움이 가득하다.(襟懷恬淡, 頗得隱居之樂.)”고 평했다. 이렇게 唱和詩詞에는 ‘남편을 돕고 자식을 교육하는(相夫教子)’ 아내의 사회적 역할이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남녀 간의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 창화시사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徐媛(1560-1619)이 남편 范允臨(1558-1641)에게 지어준 시 「送長倩夫子北徵」 5수와 范允臨가 아내에게 준 시 「春日泛舟光福觀桃花內子有作倚韻和之」, 「初夏同內子泛舟鴛鴦湖承尊舅屠貴長載酒煙雨樓下適遇微雨與內子各占二絕」 2수는 의례적인 형태의 송별시로 특별한 감정적 동요가 표현되지 않는다. 그저 부부로서 이별 상황의 슬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개인적인 감정표현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대사회 많은 부부들은 개인적 정서에 대한 공감 대신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상대와 소통한다.

#### 4) 상황에 융통성 있고 개방적인 상호 일치형 소통

이 부류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남녀 간 소통의 방식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자신과 상대에게 모두 개방적이며 상황 변화에도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14) 許汜가 劉備와 천하의 인물을 논하며 陳登을 찾아간 이야기를 했는데, 진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큰 침상에 눕고 허사를 아래 침상에 눕히더라고 말하며 진등의 호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유비에게 말한다. 그러자 유비가 ‘나 같으면 百尺樓에 내가 눕고 너를 땅바닥에 눕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는 높은 지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성숙한 남녀관계를 도모한다. 司馬相如가 탁문군을 향해 부르는 求愛歌 「鳳求凰」을 예로 들 수 있다.

「鳳求凰」司馬相如 『玉臺新詠』卷九

其一

鳳兮鳳兮歸故鄉, 봉새여 봉새여,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遨遊四海求其凰. 그간 사해를 누비며 황새를 찾았었지만  
 時未遇兮無所將, 때가 이르지 않나 만나지 못했거늘  
 何悟今兮升斯堂. 오늘밤 이 저택 오게 될 줄 어찌 알았겠는가?  
 有艷淑女在閨房, 아리따운 숙녀 규방에 있거늘  
 室邇人遐毒我腸, 방 가까워도 사람은 멀기만 하니 속이 타는구나.  
 何緣交頸為鴛鴦, 어찌하면 서로 목을 감고 다정한 원앙새가 되어  
 胡顏頰兮共翱翔. 오르락내리락 함께 날 수 있을까?

其二

鳳兮鳳兮從我棲, 황새여 황새여, 나를 따라가  
 得托孳尾永為妃. 믿고 사랑하며 자식 낳아 영원히 짝을 이루세  
 交情通意心和諧, 마음 서로 나누어 어우러지면  
 中夜相從知者誰. 한밤 중에 함께 도망친들 누가 알리오.  
 雙翼俱起翻高飛, 두 날개 나란히 펴고 높이 날아가세  
 無感我思使餘悲. 내 마음 흔들어 나를 슬프게 하지 마오.

작가는 상대방의 마음도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녀와 함께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한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와 있는 그녀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자신의 마음 또한 그녀에게 가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호소하듯 거문고 소리에 맞춰 불리어진 위의 노래로 탁문군의 마음은 몹시 설레었을 것이다. 결국 탁문군은 사마상여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야반도주한다. 상대의 마음을 간파하고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위와 같은 詩詞는 중국고전문학에서 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냈고, 남녀 간의 이 같은 소통의 방식은 문학교류사적으로도 의미 있다. 다음으로 송대 문학가 賀鑄와 賀鑄妻의 唱和詩詞를 살펴보자.

## 「寄離人」賀鑄妻 『女彊』

獨倚危欄淚滿襟, 홀로 위태로운 난간에 기대니 눈물이 소매에 가득하고,  
小園春色懶追尋. 작은 정원의 봄빛 느릿느릿 찾아보네.  
深恩縱似丁香結, 깊은 은정은 정향에 맺힌 그것 같고,  
難展芭蕉一寸心. 파초 잎처럼 내 마음 펼쳐내기 어렵네.

## 「石州引」賀鑄 『全宋詞』一冊

薄雨初寒, 斜照弄晴, 春意空闊. 長亭柳色纔黃, 遠客一枝先折. 煙橫水際,  
映帶幾點歸鴉, 東風平銷盡龍沙雪. 還記出關來, 恰而今時節. 將發. 畫  
樓芳酒, 紅淚清歌, 頓成輕別. 已是經年, 杳杳音塵多絕. 欲知方寸, 共有幾  
許清愁, 芭蕉不展丁香結. 枉望斷天涯, 兩厭厭風月.

보슬비 내리는 첫 추위에, 비스듬히 햇살 비추니 날이 개어, 봄기운에  
하늘이 넓다. 장정 위의 버드나무는 금방 새순이 돌아, 멀리 있는 나그네  
에게 한 가지 먼저 꺾어 보낸다. 아지랑이는 수평선에 자욱이 퍼지고, 돌  
아가는 기러기는 점점이 하늘을 난다. 봄바람이 모래톱 위 눈을 다 녹이  
네. 아직 기억하네. 떠날 때도 이맘쯤이었지. 출발 전에 누대 위에  
서 술 마시며, 노래하다가 눈물 흘렸지. 그러다 순식간에 이별하였네. 이  
미 여러 해 지나고 소식은 까마득히 끊어졌구나. 마음속에 맺힌 한 얼마  
나 일까? 파초 잎 퍼지지 않음과 정향의 흩어지지 않는 향기. 멀리 하늘  
가 끝없이 바라보며 두 사람 모두 이런 경치에 취하였네.

남편 하주는 전해 받은 시 속 아내의 마음을 면밀히 살필 뿐 아니라 芭蕉와 丁香 등 아내가 사용한 시어를 다시 운용하여 아내의 진심에 다가가려 노력한다. 「寄離人」에서 하주처는 남편과 이별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눈물(淚)과 느릿한(懶) 행동을 통해 매우 슬프고 공허하다 이야기한다. 또 남편을 향한 사랑은 정향의 그것처럼 깊어 흩어지지 않지만, 이별 중인 그 마음을 이야기하자니 파초의 말린 잎처럼 펼쳐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주는 아내의 시를 받고 위의 「石州引」詞를 지어 답하는데, 이별 후 여러 해가 지나고 홀로 남은 아내의 한이 얼마나 깊을지를 말한다. 아내가 말한 흩어지지 않는 깊은 정향과 말려져 퍼기 힘든 파초 잎처럼 자신의 마음도 아내와 같다고 공감을 표한다. 상대방의 詩詞의 제재를 연이어 운용하여 먼저 보내온 詩詞의 의미를 깊이 수용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화답하는 이와 같은 唱和詩詞는 남녀작가

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 화합할 수 있게 해주었던 중국 고대 남녀 간 대화와 소통의 이상적 유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唐代 越溪지역의 楊女와 謝生부부가 나눈 聯作詩를 살펴보자.

「夫妻生死聯詩」楊女·謝生 『女塲』

(一)

珠簾半床月,	주렴은 침상 달을 반쯤 가리었고,
修竹滿林風.(楊)	길게 자란 대나무 숲에 바람 가득하네.
何事今宵景,	어찌 오늘 새벽 풍경에
無人解語同.(謝)	아무도 함께 말을 나누지 않는가?

(二)

明月易虧輪,	밝은 달은 쉬이 이지러지고,
好花難戀春.(楊)	아름다운 꽃은 봄 그리기 어렵네.
常將花月恨,	꽃과 달의 한이 늘 함께 하는 것처럼
並作可憐人.(謝)	나 역시 그대와 가련한 이가 되리라.

송나라 사람 施宿 등이 편찬한 『嘉泰會稽志』 卷十九 「雜記」 에는 당대에 연작시로 시작되는 부부의 애절한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월계지역의 양녀는 아름다운 용모에 시 짓는 재주가 뛰어났다. 그녀는 시를 지을 때 늘 두 구씩만 짓고 그만두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를 이어 짓는 사람에게 딸을 시집보내겠다고 하였고 謝氏 성을 가진 서생이 그녀의 시를 보자 그녀가 읊은 것이 깊은 규방의 봄 수심과 떨치기 어려운 외로움인 것을 알고 이에 나머지 두 구를 연이어 지어 보낸다. ‘새벽 풍경에 함께 시를 읊을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고백이었다. 시를 받은 양녀는 매우 기뻐하며 사생과 혼인하였다. 양녀가 처한 상황과 마음을 간파한 사생의 연작 2구는 서로의 마음이 하나임을 말하는 일치형 소통에 가깝다. 이 부부는 만남에 이어 생의 마지막도 연작시로 이상적 소통을 이어가는데 두 번째 작품에서 양녀는 죽음을 예감하고 봄이 다해 꽃이 지는 것처럼 자신 또한 사그러져 간다고 말한다. 사생은 불길한 마음에 걱정이 되었지만 ‘그건 꽃의 이야기일 뿐 당신의 아름다운 용모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녀를 위로한다. 그러자 양녀는 ‘밝은 달이 금방 이지러져

버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과 봄도 그러하다.’라고 또다시 죽음을 이야기한다. 사생은 이에 꽃과 달의 한이 늘 함께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당신과 함께 가련한 사람이 되겠다고 답한다. 양녀는 이 답을 읊조리며 사생 곁에서 생을 마감한다. 양녀와 사생의 연작시는 시를 통해 관계를 다지는 부부의 이상적 소통의 전형을 보여주어 후대의 아름다운 미담으로 전해 내려온다.

#### 4.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 창작 특징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작품은 주고받음이라는 2단의 의미 구조를 가지고, 고대 중국사회에서 남녀간 소통과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작품들은 기존의 시사작품이 지닌 작가 자신과의 대화 혹은 미래 독자와의 대화라는 관계성을 넘어서 동시대에 존재하는 이성 타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창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적 대화를 통한 남녀 간의 진실한 감정을 표출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여성작가의 詩詞가 원래부터 개인성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는 것<sup>15)</sup>에 비해 남성작가의 詩詞에서는 개인적인 일상을 다룬 서정성이 농후한 작품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중국 고대 남녀작가의 唱和詩詞에서는 남성작가의 개인성이 강한 감성적 작품들이 많이 있고 이를 통해 남성작가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파악해 볼 수 있다.<sup>16)</sup> 東漢 말의 문인 秦嘉가 아내 徐淑에게 보낸 「贈婦

15) 解殿雙은 중국 고대 여성시사작품에는 서정성과 개인성, 생활성 등의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解殿雙, 「古代女性詩詞作品的生命之音」, 『時代文學』 上半月, 2011年 10月, p.211.

16) 반대로 여성작가의 唱和詩詞는 남성 상대방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쓴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내적갈등을 표출하기 위해 지은 詩詞작품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詩」 시에서 작가는 인생살이의 어려움에 대해 ‘근심과 역경은 늘 빨리 닥치며, 즐거운 때는 항상 더더 괴롭다네.(憂艱常早至, 歡會常苦晚.)’라며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또 ‘곧은 선비의 마음 시종 독실하지만, 사랑과 도리는 다 담기 어렵네.(貞士篤始終, 恩義不可屬.)’라며 아내를 향한 깊은 애정도 그대로 드러낸다.

「贈婦詩」 其三 秦嘉 『玉臺新詠』 卷一  
 肅肅僕夫微, 하인들이 서둘러 떠날 준비하는데,  
 鏘鏘揚和鈴. 수레 방울 땡그랑 소리 울리네.  
 清晨當引邁, 맑은 새벽 먼 길 나설 때  
 束帶待雞鳴. 의대 메고 닭 울기를 기다리네.  
 顧看空室中, 텅 빈 방 안 돌아보노라면  
 彷彿想姿形. 흡사 당신 모습 보이는 듯하고,  
 一別懷萬恨, 한 번 이별에 만 가지 한이 서리니  
 起坐為不寧. 일어나 앉아도 편안치가 않네.  
 何用敘我心, 무엇으로 내 마음을 펼칠까?  
 遺思致誠誠. 정성스런 선물 보내어 그리움을 전하네.  
 寶釵好耀首, 보석 비녀는 머리를 빛낼 수 있으며  
 明鏡可鑑形. 밝은 거울은 몸을 비출 수 있고  
 芳香去垢穢, 길은 향은 더러운 때를 없앨 수 있으며  
 素琴有清聲. 소금은 맑은 소리 내네.  
 詩人感木瓜, 시인은 모과 선물에 감동하여  
 乃欲答瑤瓊. 이에 아름다운 옥으로 보답하고자 했네.  
 愧彼贈我厚, 부끄럽네. 그대가 내게 준 두터운 선물에  
 慚此往物輕. 창피하네. 그대에게 보낸 이 선물들이 하찮아서  
 雖知未足報, 비록 충분한 답례가 아닌 줄 알지만  
 貴用敘我情. 귀중한 것은 그것으로 내 마음을 펼쳤다는 것.

특히 위의 세 번째 작품에서 작가는 정성스런 선물을 보내어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데 아내와의 지극히 사적이고 일상적인 소재에 작가의 감정이 농밀하게 담겨 있다. 이외에도 東晉시기 王獻之는 「桃葉歌」 第二首에서 애첩 桃葉에게 ‘서로 사랑하면 모두 즐거울 텐데, 유독 내 사랑만 깊구나.(相憐兩樂

事, 獨使我殷勤.)'라며 사랑에 깊이 빠진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낸다. 송대 애국시인 陸游도 主戰派로서 시를 통해 우국충정과 비통함을 단호하게 표현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정인에게 보낸 「釵頭鳳」詞에서는 섬세하면서도 다정한 개인적 감성을 드러낸다.

## 2) 의도와 목적을 지닌 여성작가의 창화시사

남성작가의 창화시사작품에서는 상대를 향한 연민이나 안타까움 혹은 자신의 슬픔 정도가 드러나지만 여성작가의 창화시사작품에서는 상대를 향한 비난이나 충고, 자신에 대한 연민과 고통 등 보다 적극적인 감정이 드러난다. 원대 작가 管道昇의 「我儂詞」작품을 예로 들어보면, 이 작품은 처음으로 첩을 취해보고자 부인의 의중을 떠보려고 쓴 조맹부의 小詞에 관도승이 화답한 작품이다. 관도승은 자신의 자존감을 짓밟는 남편의 재취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한다.

이외에도 양신과 황아부부의 唱和詩詞작품을 상호 비교해보면 이점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데, 황아는 남편과 오랜 기간 이별해 있는 자신의 심정을 「又寄升庵」시에서 피울음을 운다는 두견새의 소리로 비유하여 표현한다. 하지만 양신의 「臨江仙·成雲南江陵別內」사에서는 그저 이별이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춰있을 뿐 별다른 감정적 동요가 보이지 않고, 오래 이별할 때 느끼는 쓸쓸한 마음만 담담하게 표출되었다. 이외에 탁문군이 남편 사마상여에게 지어준 「怨郎詩」에서도 ‘백 가지 생각과 천 가지 번민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당신을 원망할 수밖에요.(百思想, 千繫念, 萬般無奈把郎怨.)’라며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녀가 남편에게 지어준 더 유명한 작품 「白頭吟」에서도 ‘그대에게 탄마음 있다기에 결별하러 왔습니다.(聞君有兩意, 故來相決絕.)’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드러낸다. 이외에 청대 長洲사람 張繫은 남편 吳士安에게 아래의 「戲爲外子撥悶」를 지어주며 남편의 근심·걱정을 적극적으로 덜고자 한다.

「戲爲外子撥悶」張紱 『清詩別裁』

失意休教苦自煎, 실의로 교육에 너무 애쓰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爲君把捲論前賢, 자신을 성현들과 비교해 괴롭히지 마세요.  
 兒頑應笑同王霸, 아들이 고집부리고 마음대로 군다면 王霸가 되게 하고,  
 婢鈍何須學鄭玄, 딸이 아둔하다 하여 鄭玄처럼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滌器當爐情更洽, 文君이 술을 팔고 相如가 그릇을 씻듯 마음 잘 맞춰,  
 操春舉案志猶堅, 梁鴻과 孟光이 예를 차린 것처럼 그 마음 굳게 해요.  
 久藏賴有床頭醞, 침대맡에 오래도록 좋은 술 두고,  
 莫負梧桐月正圓, 오동나무 아래 달이 둥글어짐을 저버리지 말아요.

작품에서 작가는 남편의 염려에 그럴 필요 없다고 위로하고, 자식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와 부부관계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말한다.

### 3) 고사성을 가미한 복합 예술적 특징

남녀창화시사는 중국 詩詞문학의 전통적 敘情性에 敘事性까지 첨가되어 복합 예술적 특징을 지닌다. 남송 시인 陸游와 唐琬이 주고받은 「釵頭鳳」詞와 원대 문인 鄭禧와 吳氏가 주고받은 「木蘭花慢」詞에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남녀작가의 애절한 마음이 생동감 있게 담겨 있으며, 시어머니 혹은 어머니의 반대로 이혼하거나 결혼하지 못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 고사성마저 농후하다. 먼저 육유와 당완은 사촌지간으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다 육유의 나이 20세에 혼인하였다. 두 사람은 문학적 취향이나 가치관도 비슷하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으나 불행히도 시어머니가 당완을 싫어하여 결국 헤어지고 만다. 헤어진 후 육유는 곧 왕씨와 재혼하였고, 당완도 문인 趙士程과 재혼하였다. 그렇게 10년을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두 사람은 紹興의 沈園에서 우연히 재회한다. 그리웠던 당완이었으나 육유는 이미 다른 남편이 있는 당완에게 그 그리움을 쉽게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완과의 재회 후 육유는 심란한 마음을 잠재울 길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아래의 「채두봉」사 한 수를



지어 보낸다.

「釵頭鳳」陸游 『全宋詞』三册

紅酥手, 黃縢酒. 滿城春色宮牆柳. 東風惡, 歡情薄. 一懷愁緒, 幾年離索.  
錯, 錯, 錯! 春如舊, 人空瘦. 淚痕紅浥鮫綃透. 桃花落, 閑池閣. 山盟  
雖在, 錦書難托. 莫, 莫, 莫!

발그레 윤기 나는 손에 황등주 들었구나. 성안에 봄빛 가득하고 궁궐 담  
장엔 버들가지 휘영청. 봄바람은 고약하여 기쁜 감정 희박하게 만들었구  
나. 가슴 가득한 시름 몇 년이나 쓸쓸히 지냈던가? 잘못이었구나, 잘못,  
잘못이었어! 봄날은 예전과 같은데 사람만 공연히 수척해졌구나.  
연지에 묻은 눈물 손수건에 스며든다. 복사꽃 떨어져 쓸쓸한 연못과 누  
각. 사랑의 맹세는 남아 있지만 비단에 쓴 편지는 부치기 어렵구나. 안  
된다, 안 돼, 안 돼!

사에는 과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이를 드러낼 수 없는 괴로운 마음  
이 애절하게 담겨 있다. 육유의 진심을 안 당완은 자신의 마음도 그와 같음을  
화답사 「채두봉」을 통해 드러낸다. 사 속에서 당완은 ‘인적 드문 새벽과 한밤  
중 어둠 속에서 곱씹었던 그림고 아픈 마음을 이제는 말한다고, 하지만 이미  
남남이 되어 결코 다시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고 말한  
다.<sup>17)</sup> 당완은 결국 병으로 죽고 만다. 좌절된 사랑과 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현  
실을 두 남녀는 사를 통해 마음을 다해 표현한다. 사 속에 드러난 애절한 진심  
에 두 사람의 사랑이야기가 더해져 예술성 높은 唱和詞를 이루었다. 두 사람의  
위의 故事는 『歷代詩餘』<sup>18)</sup>에도 전해지고 극본으로도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널  
리 알려졌고, 이러한 애정고사는 작품의 서정성을 더욱 극대화시켰다.

다음으로 원대 平陽 鰲江사람 鄭禧는 자신의 젊은 시절 직접 겪은 이야기  
를 『春夢錄』이라는 문언필기소설로 남겼다.<sup>19)</sup> 이 책의 序에 따르면 정희는

17) 『釵頭鳳』: 世情薄, 人情惡. 雨送黃昏花易落. 曉風乾, 淚痕殘. 欲箋心事, 獨語斜欄. 難, 難, 難!  
人成各, 今非昨. 病魂常似鞦韆索. 角聲寒, 夜闌珊. 怕人尋問, 咽淚裝歡. 瞞, 瞞, 瞞! 『全宋詞』  
三册

18) 『耆舊續聞』卷10과 宋代 周密(1232-1298)이 편찬한 『齊東野語』卷1에도 수록되어 있다.

젊을 때 洪府(지금의 溫州)의 객으로 잠시 머무른 적이 있는데 성 서쪽에 살던 오씨 성을 가진 여인과 우연히 시사를 주고받게 되었다고 한다. 유생과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려고 오씨 여인은 유생을 찾고 있었고 정희에 대한 소식을 들어 그에게 詩詞를 요구한다. 그렇게 시작된 詩詞를 통한 교류는 이 두 사람의 결합이 좌절되고 오씨가 병으로 죽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들의 만남이 처음 시작되게 하였던 唱和詞 「木蘭花慢」에서 정희는 아름다운 향아를 기다린 詩仙에 자신을 비유하며 오씨를 얻고 싶으나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오씨는 같은 사조의 詞로 화답하는데, 작품 속에서 오씨는 정희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와 이루어질 수 없음에 슬퍼한다. 작품 속 楚材의 고사<sup>20)</sup>와 ‘이번 생에는 東坡와 함께 할 자격이 없다’는 말에서 그녀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두 사람은 서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직감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을 시사작품으로 표현한다. 어찌할 수 없는 애절한 마음의 표현 뒤에 감춰진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있어 작품의 미감이 더해진다. 이렇게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작품에는 故事性을 지니는 詩詞가 많아 종합 예술적 특징이 보인다.

## 5. 결론

지금까지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작품의 형성 배경, 작품 속 소통의 방식, 창작상의 특징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지한 바와 같이 중국 고대 男女唱和詩詞작품에는 무엇보다 남녀 간의 소통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 불평등의 시대에 詩詞의 言辭들을 이용해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19) 『春夢錄』에 수록된 정희와 오씨의 시사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즐고, 「元代 文言筆記小説 『春夢錄』 속 唱和詩詞 시탐」, 『중국지식네트워크』 (16) 2020년을 참고 바람.

20) 薛媛은 당대의 여성화가로 濠梁(지금의 安徽省 鳳陽縣)사람이다. 南楚材는 그녀의 남편인데, 潁(지금의 河南城 許昌縣)지역의 현령이 초재의 풍채를 아껴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려 하였다. 초재는 호랑의 집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림과 글에 뛰어났던 설원은 작은 자화상을 그리고 그 옆에 「寄眞寄外」 시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알린다.

잘 들으려 했던 고대 남녀의 소통의 제스처, 그것만으로도 오늘날 이들의 唱和詩詞작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유가 사회에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당시 남성작가의 唱和詩詞작품에서는 남편 혹은 유학자로서의 정체성 외에도 남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이 함께 드러나고, 여성작가의 시사작품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젠더 정체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 즉 시사창작을 통해 소속감을 확인하고 이로써 자존감을 획득하려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을 통해 중국고전문학에서 男女唱和詩詞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 작품에서 드러나는 남녀 간 소통양상의 분석을 통해 男女唱和詩詞의 가치와 예술성을 대략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편폭의 제한으로 방대한 문학작품의 일부만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본 논문의 한계이나,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후속 연구를 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 參考文獻

- 윤호진, 「고전시에 나타난 화답시-시화에 나타난 화답시의 묘미」, 『시안』9(4), 2006.
- 姜必任, 「중국 초기 唱和詩 연구-東晉에서 梁代를 중심으로」, 『중어중문학』(39), 2006.
- 졸고, 「元代文言筆記小説 『春夢錄』 속 唱和詩詞시탐」, 『중국지식네트워크』(16), 2020.
- 彭定求,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60.
-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北京: 臺灣商務印書館, 1994.
- 唐圭璋, 『全宋詞』, 北京: 中華書局, 1998.
- 張璋, 『顧太清與奕繪詩詞合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 鄭光儀, 『中國歷代才女詩歌鑒賞』上下冊, 北京: 中國工人出版社, 2008.
- 鞏本棟, 『唱和詩詞研究』, 北京: 中華書局, 2013.
- 周殿富, 『女彊』, 北京: 北京時代華文書局, 2014.
- 蘭翎, 『唐宋才女逸史』, 北京: 測繪出版社, 2015.
- 胡曉明, 『歷代女性詩詞鑑賞辭典』, 上海: 辭書出版社, 2016.
- 李稹, 「閨秀馳翰墨清才屬令嫻——析劉令嫻答外詩二首」, 『名作欣賞』, 1996.
- 高宗愷, 「楊慎與黃娥」, 『中華文化論壇』, 1996.
- 吳小平, 「論秦嘉·徐淑的五言贈答詩」, 『蘇州大學學報』, 1999.
- 鞏本棟, 「關與唱和詩詞研究的幾個問題」, 『江海學刊』, 2006.
- 解殿雙, 「古代女性詩詞作品的生命之音」, 『時代文學』上半月, 2011.
- 胡靜, 「六朝女性詩人贈答詩初探」, 『咸寧學院學報』, 2012.
- 楊振華, 「夫唱婦隨——趙孟頫與管道昇的愛情故事」, 『中國書法』, 2014.
- 吳祥柱, 「張玉娘與沈佺: 曠古戀情堪比梁祝」, 『工會信息』, 2015.
- 葉捷, 「陸游與唐婉的「釵頭鳳」審美異同的比較研究」, 『當代教育實踐與教學研究』, 2019.
- 張詩芳, 「先唐婚戀贈答詩之創作概覽與情感呈現」, 『平頂山學院學報』, 2019.

## Abstract

### A study of poetry between male and female writers in Ancient China

Yun, Hye Ji

Works of changheshici (男女唱和詩詞) in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are rare and precious materials that show aspects of communication men and women in feudal society as well as important basic data of ancient history of their exchange. The body text discussed three of the background that works of Changhwasisa by male and female writers were created, aspects of communication between male and female writers shown in them,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on.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has tradition of creating wooing poems (求愛詩) and antiphonal poems (聯句詩) and there was gentry culture of acceptance and respect through intelligent conversation in man-woman relationships of elite groups who could create works of sisa. In addition, there were many female writers who asked their husbands for everlasting love because of marriage culture of polygamy in feudal society. Against this backdrop of the creation, the male and female writers left a lot of works of Changhwasisa. The methods of communication found in these works can largely classified into 4 types, which are receptive communication to agree with partners' feelings as much as possible and accept all of them, blaming communication to show dissatisfaction with their partners and their own inner anxiety, social communication to go beyond personal feelings, and congruent communication to be flexible and open for changes in circumstances.

The male and female writers' personal feelings are animatedly described in these works. And especially, positive feelings including criticism and official announcement are well shown in the works by the female writers. And these works are characterized by composition art because they include the reasons and ancient events that the male and female writers got to exchange them with each other.

**Key words** :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literary interchange between male and female writers, Couple writers, Singing Poetry, Changheshici(唱和詩詞)

투 고 일 : 2021. 4. 10. / 심사 일 : 2021. 4. 15.~ 2021. 5. 15. / 게재확정일 : 2021. 5. 20.

